

### 광주일보 제7기 독자위원회 2차회의

일시: 2013년 4월 22일 장소: 광주일보 회의실

광주일보 제7기 독자위원회가 지난 22일 오전 동구 금남로 2가 광주일보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하·김준원·노미향·박흥근·이묘숙·임효택·장화선·조미옥씨 등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8명이 참석했다. 독자위원들은 창사 61주년을 맞는 광주일보가 걸어온 길을 되짚으며 향후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 ‘문화수도 디자인’ 예향 광주 구체적 방향 제시했다

김윤하 (전남대병원 홍보실장)



‘기아타이거즈 특앤특’  
경기장 안팎 이야기 재미

▲김윤하=먼저 광주일보 창사 6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광주일보가 그동안 지역민을 대통합하고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잘 해왔다. 앞으로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서 ‘살아있는 광주일보’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창사특집 기획물 중 ‘고품격 문화수도를 디자인하자’ 시리즈는 예향 광주의 오늘을 돌아보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이묘숙=새로 생긴 소비자 섹션이 소비자로서, 주부로서 많은 도움이 됐다. 저렴한 가격에 품질이 좋은 상품을 어떻게 선택할지, 아웃도어 상품을 선택하는 방법, 백화점 세일기간 활용법 등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실려서 많은 도움이 됐다.

3월 20일 1면 ‘수입산 사세요 농협의 타락’ 제목의 기사는 말 그대로 속이 시원한 기사였다. 농협이라고 하면 농민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곳이라고 해서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데 국내산보다 수입산이 더 많다는 내용이 놀라웠다. 농협이 수익성과 경제성을 최우선해서 저렴한 상품만 취급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의미 있는 기사였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농협을 넘어 소규모 동네 마트의 상황은 어떤지 함께 논의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조미옥=학교에서 학생들과 신문 읽기를 하면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공부를 한다. 그런데 4월 12일자 1면 ‘학원 다니면 광주학생 10명 중 9명 ‘성적올라’ 기사를 제목과 내용은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불안하게 했다. 전남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학원에 다니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교육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자칫 공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충실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절망감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4월 8일 1면에 광주 소재 20개 고등학교 순위가 공개됐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격차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렇게 순위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지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학교 순위공개가 자극제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늘려 학생들에게 부담만 늘릴 것이다.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는 것보다는 학교도 학생도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기사를 기대한다.

▲노미향=3월 13일 7면 ‘버려진 도시빈민, 빈곤 대물림과 전염’ 기사는 많은 장에 가정이 해당되는 내용으로 공감할 수 있었다. 기존 장애인·기초수급자 관련 기사들이 수급비가 비현실적이고, 수급대상에서 탈락돼 안타깝다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는 수급자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빈곤 대물림을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대책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깊이 있는 분석이 돋보였다.

4월 16일 3면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논란 기사는 조금 아쉬웠다. 독자들은 유급보좌관제가 도입되면 광역의원들의 급여가 올라가는 등 세비 부담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지만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했을 때 추가 비용이 얼마나 필요하고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의 이유는 무엇인지를 좀 더 소상하게 보여줬으면 한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제시하는 근거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게 된다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김윤하=4월 11일 1면 ‘진혼의 사진전’ 기사는 계엄군 출신 사진작가들이 부산에서 5·18을 주제로 사진전을 갖는다는 내용으로 신선했다. 또한 ‘기아타이거즈 특앤특’은 경기장 안팎 선수들의 이야기를 공명해 하는 독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지면이다. 다른 기사에서 볼

수 없는 광주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이 많아 기아타이거즈 팬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부분이다.

지난 3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엄마가 자녀와 함께 투신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막기 위해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사건·사고가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사회면에 자주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미담 이야기를 좀 더 발굴해서 전해주었으면 한다. 특히 광주는 5·18이 다가오면 다른 주제는 모두 묻혀버리는 경향이 강하다. 5·18이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다른 의미 있는 주제가 잊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임효택=청소년은 우리 사회 미래 역량이 될 이들이다. 청소년 흡연, 학교폭력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다루는 기획기사가 필요하다. 맞벌이 가정 자녀는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피시방을 찾고 흡연이나 게임 등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데 이런 문제를 시리즈로 다룰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신문에서 청소년 게임 중독·흡연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면 학부모들도 누구나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또한 중고등학교 체육수업에 관한 내용도 좀 더 필요하다. 요즘 학생들은 체력장을 해보면 체력은 좋아졌지만 체력은 약해졌다. 학업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면 한다.

최근 발표된 논문을 보면 0교시 체육수업이 아이들 뇌에 유익한 자극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논의를 통해 학교가 학업에만 너무 치중하지 나머지 체육수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김준원=지역일간지로 지역 소식에 충실한 것도 필요하지만 전국적인 이슈에 좀 더 집중했으면 한다. 3월 9일 포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이어졌다. 다음날 중앙일간지 대부분은 일면만 산불사건을 크게 실어 산불의 위험성을 알렸다. 반면 광주일보를 비롯해 지역일간지는 사회면에만 산불 소식을 전해 산불의 크게 위험성을 알린 중앙지와 무척 대조됐다. 게다가 하단에 누트문 옷을 입은 여성의 전신이 실린 광고는 선정적이기까지 했다.

3월 21일 방송사와 금융기관이 해킹을 당한 사건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역시 중앙일간지는 대부분 1면부터 여러 면에 걸쳐 심도 있는 기사를 실었지만 광주일보는 그렇지 못해 아쉬웠다. 지역 소식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의 전국적인 내용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흥근=광주일보가 지역을 대표하는 신문으로 다른 신문과의 차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지역건설업체 실적에 관한 분석 기사는 유익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

현재 건설회사들은 단기(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하면서 경제성과 시간단축에 몰두하면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건축물이 없다. 외부에서 건축관계자들이 온다면 소개할 수 있는 곳이 전무한 실정이다. 다른 나라,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찾아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단기방식이 가진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은 무엇인지,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짓고 문화자산으로 만들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김준원 (광주은행 사회공헌국 본부장)



금융기관 해킹·산불 등  
전국 이슈 농치지 말아야

박흥근 (포유 건축사사무소 대표)



지역건설업체 분석 기사 유익  
해외사례 통한 대안제시 필요

장화선 (기후변화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관심  
자세한 내용 담은 기획물 필요

또한, 광주지역 고등학교 순위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교육을 받는 곳이 성적에 향상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아쉬웠다. 단순히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가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공유했으면 한다. 광주의 내일을 이끌 청소년들에게 어떤 교육이 절실하고 이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향후 비전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

▲장화선=3월 21일 10면에 ‘히어리’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히어리는 조통나뭇과의 낙엽 관목으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 보호종이다. 멸종위기 보호종이 발견됐다는 반가움에 기사를 읽었는데 구체적인 발견 장소가 언급돼 자칫 군락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됐다. 히어리가 보호가 필요한 만큼 기사화할 때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사회적 기업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독자들이 가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획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리=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김윤하 (전남대병원 홍보실장) '기아타이거즈 특앤특' 경기장 안팎 이야기 재미

이묘숙 (송은갤러리 관장) 생활정보 풍부 소비자 면 가정주부들에 큰 도움

조미옥 (나주 영산포여중 교사) '학원 다니면 성적 향상' 기사 공교육 불신·절망감 줄수도

노미향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사무국장) 빈곤 대물림 분석·대책 돈보여 유급보좌관 기사는 아쉬움

임효택 (광주시수영협회 전무) 청소년 흡연·학교폭력 문제 좀 더 심도있게 다뤄졌으면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려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330평/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급매매 두암타운사거리 대로변. 대지 495㎡ (150평) 건물 2205㎡ (667평). 매매가격 25억, 대출 10억, 보증금 4억3천, 현금인수 10억 7천만. 대출이자 공제후 월 1,000만원수익 사정상 급매(가격절충가능) 상담 010-7570-7525

유)그랜드대부. 광주 동구 제-008호(동구 경제과 608-2504). 최저이자 명품대출! ▶고액대출환영 ▶사업자금대출 ▶미준공건물 ▶공유지분대출. \*자사대출/ 자유상환/ 수수료없음\* 최저 월1%~월3% 최고 연39%이내. 광주 동구 불로동 121번지 그랜드힐 116호 062)228-0114, 010-4601-8942

가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매. "담양" 무인텔. 객 실: 32개. 현 성업중. 매매가 상담후 결정. 전남 지역 토지 구함. 양어장(노지), 염전, 잡종지, 학교용지(폐교). 각 토지 매수자 대기중. \*염전 실운영자 대기중.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중앙공인중개사. 임대업 하실본. \*평등공단형 준공업지역 공장건물. 대지 1,800㎡(544평) 건물 1,690㎡(510평) 보증금 7천만원. 월세 880만원 (매매가 12억7천만원) 용차5억원포함. 월이자 230만원. \*투자처도 있고 관리인이 없고 수리비용이 없고 공실이 없고 장기 계약이 되어 있어 안정형 수입이 보장됨. \*대지.전.담. \*서구 세하동 2차선 도로점 주거지역 담 12,522㎡(763평) 매매가 평당 150만원 (물류창고 공장 적임). \*전원주택지. \*광산구 오운동97번 시내버스중점 전원주택지(전망좋은) 전2,436㎡(737평) 매매가 평당 27만원. \*총장로에 대형 건물 및 대형 매장 필요하신분 상담 환영 합니다. 062-374-5945 010-3162-4989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본.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011-802-2532 (광주은행 신촌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